

친절에 대한 크리스천들의 큰 오해:
친절은 연약함, 굴종, 무비판을 뜻하지 않는다.

성경말씀: 롬2:1-8

친절하다, 친절, 매우 좋은 말이다.

표준국어 대사전: 대하는 태도가 매우 정겹고 고분고분함. 또는 그런 태도.
kind(45회), kindness(48회)

딤후3:4-5 하나님의 친절

벧후1:7 형제의 친절, 우리는 하나님의 본성에 참여하는 자,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하나님을 성품, 형제의 친절, 사랑을 더해야 한다.

하나님은 친절한 분

예수님도 친절한 분

성령님도 친절한 분

모세도 친절한 사람, 바울도 친절한 사람, 성경이 말하는 친절은 무엇인가?

오늘은 < >, 성경이 말하는 친절이란 무엇인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요즘 탄핵 정국, 매우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다.

유투브를 통해 목사들의 비성경적인 것들이 낱알이 드러나고 있다.

특별히 요즘 목사들로부터 요주의 인물로 평가되는 사람

국대떡볶이 김상현 대표, 마치 미국의 폴 워셔 비슷하게 수염도 기르고 목소리가 굵직하다.

그런데 요즘 그가 전하는 내용이 매우 중요하고 목사들에게 큰 위협이 되고 있다.

자신이 서울 온누리 교회 다닌다, 거기서 결혼, 특별한 일이 없으면 죽을 때까지 거기 다닐 것이다.

요즘 거의 매일 온누리 교회 관련 영상을 올린다. 진화론 반대, 공산주의 반대해야 한다.

이재훈 목사에게 감사한다(*).

민주당 국회의원이 온누리 교회 장로이다.(*). 내가 사는 동네

인천 연수를 정일영 의원

내란 수괴 사진(*)

김어준 프로그램에 등장해서 윤석열 대통령 계엄 등에 대해 둘이 서로 웃고 즐김(*)

폭탄주를 즐기는 정일영(*), (*)

장로님과 대판 싸웠다.(*). 더 사랑의 교회 이인호 목사

민주당 지지 온누리 교회 목사, 목사 중에 진화론 공산주의 지지하는 자는 다 내쫓아야 한다(*).

온누리 교회는 정신 차리세요

우리 교회는 성직자 계급 체제가 없다. 목사와 평신도...

대다수 한국 교회는 목사는 성직자, 나머지는 평신도, 천주교 틀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데 지금 목사들이 우습게 여기는 평신도가 가장 큰 교회 중 하나를 향해 포문을 열었다.

자, 이렇게 거침없이 말하면 친절하지 않은 것인가?

다수의 성도들이 그렇다고 이야기할 것이다.

왜? 성경이 말하는 친절에 대해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요즘 탄핵이 기각 쪽으로 대세가 기울어지면서 나는 미국 성도들의 복음적인 영상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갑자가 폴 워셔의 영상이 떴다. (*)

제목: When kindness becomes a weakness, 친절함이 연약함이 될 때
먼저 폴 워셔의 17분 영상을 소개하고 성경적 결론을 도출하려 한다.

--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친절함이 왜곡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친절함이 왜곡된 시대 혹은 심리학자나 인본주의자들에 의해 재정의된 현 세상에서 친절함은 단순히 예의 바른 것, 관용 즉 다 참아 주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즉 누구에게도 불쾌감을 주지 않는 것이 친절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친절은 용기가 없거나 약하거나 진실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 그들의 죄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친절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거절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 친절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속아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불의를 보고도 결코 맞서지 않고, 결코 불쾌하게 하지 않으며, 악에 맞서서 굳건히 서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보십시오. 그분은 세상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항상 친절하셨습니까?

그분은 바리새인들을 불쾌히 만드는 일이나 말을 피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분은 그들의 위선을 폭로했습니다.

심지어 마태복음에서 그분은 그들을 눈먼 인도자, 회칠한 무덤, 지옥의 자식들이라고 심하게 비판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5절을 보면 그분은 그들의 부패한 모습으로 인해 성전에서 상들을 뒤집어엎었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늘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했습니다. 친절은 성경과 세상 둘 다 강조하는 덕목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친절과 세상의 친절은 매우 다릅니다.

성경적 친절은 진리에 근거한 것이며 의로운 일에 대한 열망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반면에 세속적 친절은 종종 관용, 갈등 회피, 인간적 접근, 승인에 의해 이끌림을 받습니다. 이 둘의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거짓 친절에 속아 넘어가서 결국 불신앙과 타협하게 되고 하나님을 멀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세속적인 친절은 주로 사람들이 기분 좋게 느끼게 하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세상의 친절은 잘못을 구분하지 않고 다 수용할 것을 추구하며 위로만 주고 교정에는 관심이 없고 진실 없이 사랑만 외칩니다.

사람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사랑스러운 일은 주위 사람들이 무슨 선택을 하든 그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그 선택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이라고 세상은 믿고 가르칩니다.

이런 종류의 친절은 죄와 회개에 관한 어려운 대화를 피합니다. 동성에 낙태 공산주의 등...

죄와 회개에 대해 말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멀어지게 할 수 있으니 하지 않는 것이 친절이라고 말합니다.

멀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잠언 14:12는 다음과 같이 경고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옳으나 그것의 끝은 사망의 길들이니라.

죄를 직시하고 죄라고 말하지 않는 친절은 친절이 아닙니다.

그런 친절은 속임수입니다.

성경적인 친절은 그런 친절보다 훨씬 더 깊고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적 친절은 단지 사람들을 기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정으로 선한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4장 15절에서 우리에게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죄를 보았을 때 침묵하는 것이 친절이 아니라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것이 친절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친절을 베푸셨습니다.

사역을 하는 동안 그분은 죄인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죄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간음하다 잡힌 여자를 만났을 때 그녀를 용서했지만 그녀에게 명령도 주었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요한복음 8:11

세상의 친절은 사람에 대한 두려움에 의해 움직이는 반면 성경적인 친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에

의해 움직입니다.

만약 우리가 사람들의 영원한 영혼보다 그들의 일시적인 행복에 더 신경을 쓴다면 우리는 참된 친절을 실천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10,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한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참된 친절은 타협하지 않습니다. 참된 친절은 하나님을 악이라고 부르는 것을 용납하지 않습니다.

참된 친절은 그것을 죄라고 말함으로써 죄인들을 회개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와 일치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는 모순이 되는 친절은 전혀 친절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험한 거짓말입니다. 진리를 타협하는 것은 가장 큰 위험 중 하나입니다
오늘날의 기독교인들은 진리보다 관용을 택하려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갈등, 비판, 거부를 피하기 위해 확고한 신념을 포기합니다.

그러나 진리가 훼손되면 교회는 힘을 잃고 신자들은 믿음을 잃고 그 기초를 잃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되면 세상은 구원의 유일한 희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진리는 사람마다 다른 상대적인 것이 아니라 절대적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희석시킬 때, 우리는 그 진리를 사회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우리는 영적 반역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표준을 인간의 승인과 바꾸는 순간 우리는 신실함을 잃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경고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들을 부끄러워하면 사람의 아들도 자기 아버지의 영광 속에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를 부끄러워하리라, 하시니라.

구약 성경의 역사 전반에 걸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명령을 반복적으로 외면하고 주변 민족들의 방식을 따랐고 그들은 외국의 신들을 수용하고 세속적인 관습을 따랐고, 그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같은 위험이 오늘날에도 존재합니다. 교회들이 죄의 회개와 거룩함에 대한 설교를 중단하고 세상의 문화적 트렌드를 수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룩 뮤직, 쓰러뜨리는 것, 기복 신앙
그들은 사람들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타협된 진실은 종종 미묘하게 시작됩니다. 여기에서 작은 양보를 하고 저기에서 완화된 입장을 보이면 결국에 가서 성경적 진실은 거의 알아볼 수 없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 성적인 문제와 같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주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피합니다.

성적 부도덕, 그리스도의 유일성과 배타성, 지옥의 현실 등을 말하지 못합니다. 왜? 두려움 때문입니다. ‘

그들은 사람들을 불쾌하게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지만 사실 복음 자체가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는 불쾌한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8을 보기 바랍니다.

이는 십자가를 선포함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권능이기 때문이라.

진리는 결코 대중적인 인기를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진리와 타협한다면 우리는 주님을 배신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한다면 이미 길을 잃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라는 부르심은 굳건히 서라는 부르심입니다.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인기가 없을 때도, 비용이 많이 들 때도,

모든 것을 희생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사람들의 승인과 바꾸려 하면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은 예수님이 세상에서 정의하는 방식대로 항상 온화하고 친절하고 착한 사람이라는 거짓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예수님이 갈등을 피하셨고 사람들을 대할 때 결코 거칠게 말하지 않고 항상 부드러웠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예수님이 항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 착한 분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의롭고 담대했으며 죄에 맞서기를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사랑은 수동적으로 모든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분의 거룩한 사랑은 죄를 지적하고 사람들을 회개와 진리로 이끌었습니다.

예수님은 책망을 들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 그분은 바리새인들을 직접 대면하여 그들의 종교적 교만과 속임수로 인해 그들의 거짓된 의로움을 공개적으로 폭로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것은 잔인한 행위가 아니라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사람들을 멸망으로 이끌기 위해 죄를 감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친절하게도 그들의 악행에 대해 경고하고 구원을 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을 장사 터로 사용하는 사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자 그분은 채찍을 만들어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분은 그들의 탁자들을 뒤집어엎고 선언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이것은 통제할 수 없는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함에 대해 열정적이셨고, 그분의 집을 장터로 만드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때로는 진실을 말하셔서 사람들을 화나게 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빵이며 오직 자신을 통해서만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등을 돌리고 그분을 떠났습니다.

이유: 그분의 가르침은 너무 어렵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들을 얻기 위해 자신의 메시지를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균중을 기쁘게 하기 위해 자신의 말을 부드럽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그는 균중들이 떠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진리에 헌신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은혜롭고 사라이 많은 분이셨지만, 그분의 사랑은 약하거나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회개해야 할 죄인들의 위선을 책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하고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결코 세상의 기준을 따르면 안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5-6절:

5 또 자식들에게 하듯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권면을 너희가 잊었도다. 이르시되, 내 아들이아, 너는 주의 징계를 멸시하지 말고 그분께 책망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6 주께서는 자신이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자신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디모데후서 4:1-4를 보기 바랍니다.

구약시대의 모든 대언자들: 왜 핍박을 받았나? 타협하지 않고 진실을 말하였기 때문에

답후3:12-13

결론

성도는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야 한다.

이번 탄핵 사태: 김상현 대표, 전한길 강사 등 소위 평신도들이 목사들의 위선과 타협을 꾸짖는 계기가 되었다. 교회에서 목사들이 제사장 대접 받으면 왕 노릇 하면 안 된다.

성도들보다 더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해야 한다.

동성애는 죄라고 말해야 그칠 수 있다.

낙태는 죄라고 말해야 그칠 수 있다.

공산주의는 죄라고 말해야 살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구원자라고 말해야 구원받을 수 있다.

오직 은혜로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말씀들을 보존해 주실 수 있다고 믿고 '없음'이 없는 성경대로 믿어야 한다.

그것이 타협하지 않는 길이요,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다.

성경의 친절은 세상의 친절과 다르다.

하나님의 공의를 드러내는 친절이라야 사람을 살릴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참된 친절이 무엇이며 사람의 친절과 어떻게 다른가를 배워야 한다.